

張錫純의 肝病治療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金鎮玉·金容辰

關於張錫純之肝病治療的研究

金鎮玉·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張錫純(1860~1933)是清末民初時期的醫家，通過對其所著『醫學衷中參西錄』的第五期第三卷中，關於“論肝病治法”內容的研究，所得出的結論是，其對肝病的治法可概括為平肝法，散肝法，化肝法，柔肝法，鎮肝法，斂肝法，補肝法，緩肝法等八法。

平肝法認為，人之元氣扎根于神，萌芽于肝而柔弱易損，故不可開破肝氣。且內經中“厥陰不治，求之陽明”與金匱中“當先實脾”，都以舒調肝氣為關鍵，因此以昇降湯與培脾舒肝湯等立方，且作為平肝藥重視了桂枝。散肝法認為，肝為木臟，具有直向性而向上伸展，所以符應其性，而用辛味散之，即可為補法。作為散肝藥，其善用茵蘆與麥芽。化肝法是在肝體增大，或肝中有熱，或肝氣鬱滯，或壅脹時，作為疏肝達鬱之法，使用了柴胡，乳香，沒藥，且以活血藥當佐藥使用的治法，尤其重視了三七根。柔肝法是根據“肝惡燥喜潤，燥則肝體板硬而肝火肝氣即妄動，潤則肝體柔和而肝火肝氣長寧靜”的理論，認為在治療中可選用當歸，芍藥，柏子仁，玄參，枸杞子，阿膠，鱉甲，但不可長期使用。其鎮肝法是，在治療驚癇，癲狂，眩暈，腦充血諸證時，作為代表處方選用了鎮肝熄風湯。斂肝法是根據其“凡人元氣之脫，皆脫在肝”的獨特理論，以來復湯等作為代表處方進行治療的方法，且大劑量使用了山茱萸。補肝法是在肝氣虛弱而失其條達時使用的治法，認為黃芪是補肝的主藥。緩肝法是依據“肝苦急，急食甘以緩之”之說而定的治法，認為單味甘草是代表藥。

關鍵詞：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肝病的治法八法。

I. 緒論

張錫純(1860~1933)은 字가 壽甫이고 河北省 鹽山縣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儒學과 醫學을 공부하였으며 과거시험에 落榜한 이후 의학에 만 전념하였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곧 기록해 두었다가 책으로 엮어

刊行하였는데 이것이 곧 『醫學衷中參西錄』이다.

張錫純은 臨床의 各科에 두루 능통하였지만 특히 肝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 이외에 임상을 통해 心得한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肝은 陰中之少陽으로 五行에서 木에 속하며 春에 應한다. 肝은 將軍之官으로 陽氣를 升發시키고 條達을 喜하며 抑鬱을 惡하고 數和를 主하며 怒를 主하고 體陰而用陽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陰이란 肝이 穹격막 아래에 위치하여 陰中에 자리하며 陰血을 藏하고 있고 실질 자체가 점

* 交信著者：金容辰，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042) 280-2626, king@dju.ac.kr.

차 硬化 되어가는 특징을 말한 것이며 用陽은 陰中之少陽이 되어 少陽春升之氣를 升發하는 작용으로 主疏泄, 性喜條達, 內寄相火, 主升主動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또 肝의 主要한 기능으로는 藏血 藏魂하고 主疏泄하는 기능이 있다.

肝은 藏血하는 기능 때문에 血海라고도 하는데 잠을 자거나 휴식할 때는 血이 肝에 머무르다가(人臥血歸於肝) 각 부분의 생리적 특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 곳에 輸布되니 이를 『素問·五藏生成篇』에서는 “目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이라 하였다.

또 肝은 主目, 主筋, 主爪甲하며 병리에서는 氣機鬱結 또는 上逆, 橫逆 등이 많으며, 쉽게 生風動火하는 특징이 있다. 古今의 醫家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論說을 하였으나 肝主氣化, 肝病의 氣機逆亂을 戒의하고 肝氣虛, 肝主脫, 肝寒 등에 대한 論說은 극히 적었다. 張錫純은 당시의 醫家들이 平肝, 伐肝藥物을 濫用하는 弊단을 보고 肝主氣化, 體陰用陽의 生理에 대하여 전면적인 論說을 하여 “肝에 補法은 없다는 말은 원래 道를 제대로 보고 한 말이 아니다.(肝無補法 原非見道之言)”이라고 하였으며 또 溫補肝氣法을 창조하여 肝氣虛, 肝氣脫, 肝寒證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장석순은 五臟 중에서도 특히 肝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생리, 병리 등의 이론과 임상 및 약물치료에 대하여 탁월한 경지를 개척하였고, 장부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闡發하였다.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복잡한 社會生活 등으로 肝癌, 肝硬變, 肝炎 등 肝에 대한 질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清末 民國初의 名醫로서 西洋醫學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中의 學의 本質을 잃지 않아 當時에 名醫四大家(醫林四大家), 名醫三張으로 칭송되었던 張錫純의 肝病治療에 關한 연구는 이시기에 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그의 生理, 病理에 대한 闡發과 간병치료에 대한 特徵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肝病治法에 대한 내용

『醫學衷中參西錄』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특히 第五期 第三卷에 있는 “論肝病治法”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張錫純의 肝病治法에 대한 내용은 平肝法, 散肝法, 化肝法, 柔肝法, 鎮肝法, 斂肝法, 補肝法, 緩肝法의 八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平肝法

張錫純은 “肝爲厥陰이오 中見少陽하고 且有相火寄其中 故로 內經에 名爲將軍之官이니 其性至剛也라 爲其性剛이라 當有病時에 恒侮其所勝하여 以致脾胃受病하여 至有 脹滿 疼痛 泄瀉 種種諸證 하니라 因此方書有平肝之說하니 謂平肝即所以扶脾”라고 하였다. 이는 淸나라 周學海의 “平肝即舒肝”이란 학설과 일치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平肝에 쓰는 藥에 대하여 “若遇肝氣橫恣者는 或可暫用而不可長用이라 因肝應春令하여 爲氣化發生之始니 過平則人身之氣化必有所傷損也라”고 하였다. 그는 升降湯으로 肝鬱脾弱, 胸脇脹滿 不能飲食을 치료하면서 平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세간의 醫家들은 걸핏하면 平肝이라고 말하면서 肝鬱證을 만나면 肝氣를 開破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는 木盛侮土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만나면 다시 肝을 伐함으로 써 脾를 扶養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元氣가 腎에 뿌리를 두고 肝에서 擘이 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물의 擘은 모두 연약하여 손상되기 쉬운데 肝은 元氣가 처음 擘을 띄우는 臟이므로 이를 開破시킨다면 元氣가 처음 擘을 띄우는 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內經』에서 “厥陰(肝經)不治 求之陽明(胃經)”이라고 하였고 『金匱』에서는 “肝病을 보면 먼저 脾를 實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先聖과 後聖께서 말씀하신 바가 한결같다. 그러므로 이 처방에서는 약간의 桂枝와 川芎으로 肝氣를 풀어 주고 나머

지 약들은 脾胃를 승강시키면서 中土를 배양시켜 中宮의 氣化를 두텁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럼으로써 肝氣가 저절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內經』의 '救之陽明'과 『金匱』의 '當先實脾'의 오묘한 뜻을 따른 것이다.)¹⁾

脾臟은 升清을 주관하고 津液을 운송하여 上達하게 하며, 胃는 降濁을 주관하고 水穀을 운송하여 下行하게 하는데 이렇게 一升一降하면서 음식물의 消化와 吸收를 책임지고 있다. 脾胃의 정상적인 기능은 자체의 氣化作用에 의지하는 외에 또 肝膽의 疏泄機能의 영향도 받는다. 그러므로 脾胃의 질환은 반드시 肝膽을 調治하여야 하지만 肝膽의 질환은 脾胃로부터 着手하는 경우는 드물다. 張錫純은 『內經』에서 厥陰治法에 대한 “調其中氣 使之和平”, “厥陰不治 求之陽明”과 『金匱』의 “見肝之病 當先實脾”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또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小柴胡湯으로 少陽證을 치료할 때 處方中에 人蔘, 甘草, 半夏, 大棗를 사용하여 調理脾胃하여 中氣가 和平을 이루게 하는 이치와 吳茱萸湯으로 厥陰乾嘔, 吐涎沫하는 증상을 치료할 때 處方中에 人蔘, 大棗로 調理脾胃하는 이치를 연구하고 또 『本經』에서 柴胡가 비록 少陽을 치료하는 主藥이지만 또한 胃腸의 結氣, 飲食積聚를 치료한다는 논술을 참고하고 또 자신의 임상경험과 결합하여 “脾를 실하게 하는 것이 肝을 다스리는 것이다.(實脾卽所以理肝)”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사람의 臟腑는 脾胃가 토에 속하는데 원래 金木水火 諸藏을 包括한다. 肝氣는 升해야 하는데 脾土之氣의 上行이 아니면 肝氣가 升하지 못한다. 膽火는 下降해야 하는데 胃土之氣의 下行이 아니면 膽火도 내려가지 않는다.”라고하여 肝의 氣化 역시 脾胃의 도움에 의지하는 이치를 지적하면서 升降湯, 培脾舒肝湯 등 처방을 만들었다. 위 처방에서는 台參, 白朮, 黃芪, 陳皮, 川朴, 鷄內金 등으로 升脾降胃하고 中土를 培養하며 약간의 桂枝, 川芎 또는 生麥芽 등을 넣어 舒肝氣하여 肝氣鬱結하고 脾胃失運한

증상을 치료하였다. 張錫純은 위 처방의 뜻을 해석하기를 “中土를 배양하고 中宮의 氣化를 敦厚하게 하면 肝木이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다. …… 그러므로 脾가 上行하면 肝氣도 저절로 上升하고 胃氣가 下行하면 膽火도 따라서 下降한다.”라고 하였다. 張錫純의 이런 이론관점과 그가 만든 처방은 지금에 와서도 慢性肝炎, 膽囊炎의 치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

張錫純은 평소 肝氣가 不順한 病이 있다가 그 뒤 肝氣가 격동하여 脇下痛이 있고 오래됨에 胃口疼까지 겸한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肝氣의 鬱結을 잘 풀어주는 柴胡를 쓰지 않고 桂枝를 써서 치료하였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桂枝와 柴胡는 비록 모두 肝을 잘 다스려 주나 그 성질에는 실제로 차이점이 있다. 이증처럼 통증이 옆구리에 비롯된 경우는 肝氣가 鬱結하여 소통되지 못해서 옆구리 통증이 胃口까지 미치게 된 것이니 이 역시 肝木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한 것이다.

柴胡는 肝氣의 鬱滯를 풀어줄 수 있으나 肝木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정시킬 수 없고, 桂枝는 그 氣가 溫升하여(溫升은 木氣가 된다) 肝氣의 鬱結을 풀어줄 수 있어 脇痛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 味가 辛辣하여(辛辣은 金味가 된다) 肝木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평정시킬 수 있으니 胃의 통증 역시 나올 수 있다. 단지 그 성질이 溫에 치우쳐서 肝血이 虛損하여 熱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龍膽草를 가하여 약제를 조화시켜 성질을 和平하게 한 후에 사용하면 이익은 있되 손해는 없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두 처방의 요점은 肝氣를 상승시키면서 胃氣를 하강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桂枝의 오묘한 작용은 肝氣를 상승시키는 要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胃氣를 하강시키는 要藥이기도 하다.

『金匱』의 桂枝加桂湯은 腎邪 때문에 奔豚이 상부를 침범해서 中焦로 곧바로 뛰어드는 것을

1)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81~182.

치료하는데 처방에서 桂枝가 主藥이니 이는 胃氣를 하강시키는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 『神農本經』에서는 桂枝가 上氣·咳逆·吐吸을 主한다고 하였으니(흡입하여 根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토출하게 되는데 후세에서는 ‘喘’이라 하였다) 桂枝는 원래 肺氣를 잘 내려주지만 반드시 胃氣가 끊임없이 하강해야 肺氣가 내려가는데 장애가 없게 된다. 肝氣가 상승하고 胃氣가 하강하는 것은 원래 인체의 氣化升降의 정상적인 道이므로 인체가 자연의 氣化를 따라서 調養되면 병이 있는 경우에도 자연히 병이 없게 된다. 이것이 두 처방 가운데 柴胡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桂枝를 사용한 이유이다.”²⁾

또 그는 肝氣가 不舒해서 木鬱克土하여 脾胃之氣가 不能升降하여 胸中滿悶하고 常常短氣환자를 培脾舒肝湯으로 치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脾는 清氣를 상승시키므로 津液을 위로 이르게 하고, 胃는 濁氣를 하강시키므로 糟粕을 하행시킨다. 白朮과 黃芪야말로 脾胃를 補하는 약이다. 桂枝는 柴胡와 함께 脾氣의 상승을 돕고, 陳皮는 厚朴과 함께 胃氣의 하강을 돕는다. 清升降濁하여 그득하면서 답답한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니 굳이 肝氣를 순조롭게 하지 않아도 肝氣가 저절로 순조롭게 된다. 이에 桂枝, 柴胡와 麥芽는 모두 舒肝하는 神妙한 약이 아니겠는가?

芍藥을 사용한 것은 肝氣의 상승으로 膽火도 이를 따라 상승될까 염려되어서이고, 또한 黃芪와 桂枝의 熱을 풀어 주기 위해서이다.

生薑을 사용한 것은 그의 辛溫한 성질로 發散·疏通하여 끊임없이 肝脾의 氣化를 융화시킬 수 있음을 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적에서는 麥芽를 모두 炒熟하여 사용하였는데 오직 陳修園만 이 麥芽를 生用하면 肝氣를 升發시킬 수 있다 하였으니 독특한 식견이라고 할 만하다. 대개 사람의 元氣는 腎에 근원을 두고 肝에서 싹을 틔우며 脾에서 배양되어

胸中에 쌓여서 大氣가 되어 온몸을 순환한다. 麥芽는 穀食의 싹이므로 肝과 더불어 同氣相求할 수 있다.

그러므로 肝經에 들어가 肝氣를 條達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로서 시험해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생것을 끓여 마셔야만 氣가 잘 升發될 수 있고 그러한 이후에야 條達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麥芽는 升發의 성질을 갖추고 있고 실제 소화작용을 겸하고 있다. 화학자들이 麥芽를 理石(즉 石膏이다) 위에서 밟아 시켰더니 麥芽의 뿌리가 퍼져 있는 곳의 돌은 약간 파여 있었다하니 얼마나 소화역이 뛰어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麥芽를 사용하여 肝氣를 生發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人蔘, 黃芪 등의 약과 함께 사용한 후에야 보탬이 있고 손해가 없게 된다.”³⁾

특히 張錫純은 平肝에 계지를 중시하였는데 “其花開于中秋하니 是桂枝性이 原得金氣而旺이요 且又味辛屬金이라 故善抑肝木之盛해야 使不橫恣而桂之枝形은 如鹿角하야(樹形은 分鹿角蟹爪兩種이라) 直上無曲 故로 又善理肝木之鬱하야 使之條達也라 爲其味甘 故로 又善和脾胃하야 能使脾氣之陷者上升하고 胃氣之逆者下降하니 脾胃調和則 留飲自除하고 積食自化라.”⁴⁾고 하였다.

2) 散肝法

『素問·臟氣法時論』에서 “肝欲散하니 急食辛以散之니 用辛補之오 酸瀉之”⁵⁾라고 하여 肝은 木의 臟器로 直向性을 가지고 위로 뻗어가므로 그 성질에 부응하여 辛味로 散하는 것이 補法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張景岳은 『類經』에서 “木不宜鬱故로 欲以辛散之니 順其性者爲補

2)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68.

3)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3.

4)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84.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49.

오 逆其性者爲瀉니 肝喜散而惡收故로 辛爲補酸爲瀉⁶⁾라고 하였으며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辛은 金味也라 金克木하야 乃辛在肝爲瀉어늘 而云用辛補之는 何오 蓋此節은 專就五臟之本性而言補瀉니 不拘五行相克之常理也”⁷⁾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論肝病治法에서 “有謂肝于五行屬木하고 木性原善條達하니 所以治肝之法은 當以散爲補라(方書에 謂肝以斂爲瀉 以散爲補라) 散者는 卽升發條達之也라”라고 하였는데 그가 善用한 散肝藥으로는 茵陳, 麥芽 등이 있다.

麥芽에 대해서 그는 “雖爲脾胃之藥이나 而實善舒肝氣라(舒肝에 宜生用이니 炒用之則無效라.) 蓋肝于時爲春이오 于五行爲木이니 原爲人身氣化之萌芽라(氣化之本은 在腎하고 氣化之上達은 由肝故로 肝爲氣化之萌芽라.) 麥芽與肝爲同氣相求故로 善舒之라 夫肝主疏泄하고 爲腎行氣하야 爲其力能舒肝하야 善助肝木疏泄以行腎氣故로 又善于催生이라.”⁸⁾고 하였다.

여기서 특히 그는 生用을 해야만 舒肝의 작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와 경험 그리고 前人 陳修園의 說을 종합하여 그가 터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茵陳에 대해 그는 靑蒿之嫩苗(정호의 어린 싹)라고 하면서 “爲其稟少陽初生之氣하야 原與少陽으로 同氣相求라 是以로 善清肝膽之熱하고 兼理肝膽之鬱하니 熱消鬱開면 膽汁入小腸之路毫無阻隔也라. 『別錄』에 謂其利小便除實熱이라하니 亦清肝膽之功效也라 其性이 頗近柴胡나 實較柴胡之力柔和하니 凡欲提出少陽之邪나 而其人이 身弱陰虛하야 不任柴胡之升散者는 皆可以茵陳代之라.”⁹⁾고 하였다. 이로 볼 때 張錫純이 사용한 茵陳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茵陳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張錫純이 麥芽와 茵陳을 간기를 상승시키는 약으로 사용한 이유는 모두 곡

식과 풀의 어린 싹으로 인체에서 氣의 萌芽를 주장하는 肝과 同氣相求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土는 稼穡을 이루어 내고, 稼穡은 甘味를 만든다. 온갖 곡식이 味가 甘한 것은 土에 속하므로 補益할 수 있다. 온갖 곡식의 싹은 또한 木에 속하므로 疏通시킬 수 있지만 氣分으로 들어가는 것과 血分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

甲에서 생겨난 것은 陽으로서 그 싹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데 벼, 조(세간에서는 좁쌀 <穀子> 이라고 부른다), 보리, 메기장, 차기장(역시 蘆稷이라고 부르고 세간에서는 高粱이라고 부른다) 등의 싹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陽에 속하기 때문에 氣分을 疏通시킬 수 있다.

乙에서 생겨난 것은 陰으로서 그 싹의 형상이 ‘乙’자처럼 굽어져 나오니 모든 콩의 싹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陰에 속하기 때문에 血分을 소통시킬 수 있다. 『金匱』의 薯蕷丸은 이것을 사용하여 血痺虛勞를 치료한다(薯蕷丸 가운데 大豆黃卷이 있다).¹⁰⁾

張錫純은 항상 麥芽와 茵陳을 肝氣를 上昇시키고 昇發시키는데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는 “肝은 將軍之官이고 相火가 그 가운데에 있어 성질이 가장 극렬하니 만약 강제로 억제시키면 항상 반동하는 힘이 격렬하게 발생된다. 麥芽와 茵陳은 肝氣를 잘 펼치게 하면서도 지나치게 끌어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肝木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여 반동력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¹¹⁾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然升散常用하면 實能傷氣耗血하고 且又暗傷腎水以損肝木之根也라”고 하였다.

3) 化肝法

張錫純은 혹 肝體가 커지며 혹 간속에 열이

6)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 453.

7)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43.

8)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09.

9)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10.

10)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83~184.

11)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9.

있거나 肝氣가 鬱滯되거나 壅脹될 때 疏肝達鬱시키는 약을 사용하였는데 柴胡, 乳香, 沒藥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活血시키는 약을 佐藥으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桃仁, 紅花, 楞鷄, 蟻蟲 등과 같은 것이다. 活血藥 중에 三七根으로 化瘀生新하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또 瀉熱藥을 佐藥으로 삼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大涼한 藥을 쓸 수는 없는데 그 理由는 瘀滯된 血이 涼氣를 만나서 凝滯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連翹, 茵陳, 川練子, 梔子 등의 藥을 選用하여 涼한 가운데서 散하기도 하는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삼았다.

그는 柴胡에 대해서 “其氣于時爲春이오 于五行爲木 故로 柴胡爲足少陽主藥 而兼治足厥陰이라 肝氣不舒暢者는 此能舒之오 膽火甚熾盛者는 此能散之오 至外感在少陽者도 又能助其樞轉以透膈升出之라 故로 本經謂其主寒熱이라하니 寒熱者는 少陽外感之邪也라 又謂其主心腹腸胃中結氣와 飲食積聚라하니 誠以五行之理로 木能疏土하니 爲柴胡善達少陽之木氣면 則少陽之氣自能疏通胃土之鬱하야 而其結氣飲食積聚 自消化也라.”¹²⁾고 하였고 乳香과 沒藥에 대해서는 “乳香은 氣香竄하고 味淡 故로善透竅以理氣하고 沒藥은 氣則淡薄하고 味則辛而微酸 故로 善化瘀以理血이라 其性이 皆微溫하니 二藥并用하야 爲宣通臟腑流通經絡之要藥이라.”¹³⁾고 하면서 비록 開通시키는 藥이지만 氣血을 耗傷시키지 않는 정말로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또 曲直湯에 乳香과 沒藥을 사용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乳香과 沒藥은 經絡의 氣血을 소통시킬 뿐만 아니라 臟腑 중에 氣血이 응체된 것이 있을 때도 모두 소통시킬 수 있다. 의사가 단지 먼저 經絡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서 瘡瘍을 없애거나 瘡瘍에 직접 바르는 데만 사용하고 臟腑의 氣血을 調理시키는 것에는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찌 乳香과 沒藥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¹⁴⁾라고 하였다.

그는 肝鬱多怒, 胃鬱氣逆하여 吐血, 衄血을 秘紅丹(大黃一錢, 肉桂一錢, 生赭石六錢)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0여 세의 어떤 부인이 기침을 하면서 咯痰중에 血이 섞여 있었는데 심할때는 입안 가득히 吐血을 하였고 항상 心中에서 발열을 느꼈다. 脈은 분당 90회를 뛰었으나 누르면 實하지 않았다. 滋陰시키면서 寧嗽降火하는 약을 여러 劑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기에 만약 전적으로 咳嗽을 그치게 하는 약만을 사용하여 기침을 낮게 한다면 吐血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이에 川貝母 9錢을 사용하여 4잔의 맑은 탕이 되도록 달인 후 生山藥 가루 1兩을 타서 졸여 묽은 죽으로 만들었다. 하루에 계속하여 2劑를 복용시켰더니 기침이 갑자기 그치고(이 처방은 虛嗽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다) 吐血도 역시 낮게 되었다. 며칠 후에 血氣가 위를 적서 주는 것을 느꼈고, 肺(목구멍)가 다시 가려우면서 기침이 나게 되어 吐血이 재발하였다. 밤에 잠을 잘 때는 항상 화를 내는 꿈을 꾸었는데 화가 매우 심하거나 혹은 꿈속에서 울게 되면 잠을 깬 후에 반드시 吐血이 생긴다고 호소하였다. 이 말에 근거하면 肝氣가 반드시 울체되어 막혀 있기 때문에 舒肝(連翹와 薄荷는 많이 사용할 수 없다)·瀉肝(龍膽·梔子)시키는 약으로 바꾸고 또 養肝(栝子仁·生阿膠)·鎮肝(生龍骨·生牡蠣)시키는 약으로 보조하여 여러 劑를 복용시켰더니 병이 조금 경감되었으나 아직도 간간히 화를 내는 꿈을 꾸었고 깬 후에는 여전히 吐血을 하였다.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하려 하였으나 환자가 나를 믿으면서 약을 복용하니 물리치기가 어려웠다. 여러 번 주저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平肝시키는 약으로는 桂枝가 가장 으뜸인데 肝은 木이니 木이 桂枝를 얻으면 마르게 되지만 (桂枝로 못을 만들어 나무에 박으면 그 나무는 곧 마른다) 桂枝하나만을 사용한다면 熱하게 되고, 降胃止血하는 약으로는 大黃이 가

12)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81.

13)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23.

14)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92.

장 으뜸인데(『金匱』에 土衄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瀉心湯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大黃을 重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胃氣가 上逆하지 않으면 血도 逆上하지 않지만 [大黃] 하나만을 사용하면 寒하게 되므로 만약 두 약을 함께 사용한다면 寒熱이 서로 다스려 약의 성질이 和平하면서 降胃平肝하게 되므로 부작용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세간에서 전해지는 처방 중에 이 두 약을 사용해 散으로 만들어 吐血을 치료하는 것(뒤의 ‘化癥理血湯條에 상세히 나와 있다)이 있는데 이러한 중에 사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시 성질이 무거운 약으로 보조하면 약력이 전적으로 하행하게 되어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大黃과 肉桂 가루를 각각 1錢씩 고르게 섞어 生代赭石 가루를 달인 탕으로 送服시켰더니 吐血이 곧 나았고, 화를 내는 꿈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었다. 그 후에 吐血하는 환자 여러 명에게 이 처방을 투여하였더니 모두 효과가 있었다. 사람의 신체가 건강한데 갑자기 吐血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變方하여 大黃과 肉桂 가루를 1.5錢으로 하고 生赭石 가루를 6錢으로 하여 고르게 섞어 3차례로 나누어 白開水로 약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送服시켰다(生赭石은 가루로 갈아서 복용할 수 있는데 앞의 ‘赭鑛耆湯條에 상세히 정리해 놓았다.)¹⁵⁾

4) 柔肝法

張錫純은 “有謂肝惡燥喜潤하니 燥則肝體板硬而肝火肝氣即妄動이오 潤則肝體柔和 而肝火肝氣長寧靜”이라고 하였다. 前人은 潤藥으로 柔肝시키는 法을 사용하였는데 張氏는 當歸 芍藥 栝子仁 玄蔘 枸杞子 阿膠 鱉甲 등을 모두 選用할 수 있다고 하였고 活血시키는 藥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三七根을 研末하여 沖服하면 肝體木硬(肝硬化)한 者가 날이 갈수록 柔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潤藥屢用하면 實與脾胃有碍하니

其法亦可暫用而不可長用”이라고 하였다.

當歸에 대해 張錫純은 生血活血之主藥이라 하면서 “能緩肝木之急故로 金匱當歸芍藥散은 治婦人腹中諸疼痛”이라 하였고 芍藥에 대해 陰虛有熱, 小便不利를 다스리는 要藥으로 “爲其味酸 故로 能入肝以生肝血하고 爲其味苦 故로 能入膽而益膽汁하며 爲其味酸而兼苦하고 且又性涼하며 又善瀉肝膽之熱하야 以除痢疾後重(痢後重者는 皆因肝膽之火下迫이라.)하야 療目疾腫疼(肝開竅于目)”이라 하였고 栝子仁은 “能涵濡肝木하야 治肝氣橫恣脇痛”하며 “栝爲百木之長으로 葉獨西指하니 是爲金木相媾오 仁則色黃白而味甘辛하고 氣清香有脂而燥하야 雖潤不膩故로 肝得之而風虛能去”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三七根에 대해 “善化瘀血하고 又善止血妄行하야 爲吐衄要藥”이라 하고 대개 약을 써서 억지로 止血을 시키면 항상 血이 經絡에 瘀滯되어 血痺虛勞를 이루지만 이 三七根 만은 병이 나은 뒤에도 瘀血이 經絡에 머물러 虛勞症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引用한 本草의 약성에 대한 모든 내용은 醫學衷中參西錄第四期 本草解를 참고하였다. 이후의 내용도 이와 같다.)

5) 鎮肝法

張錫純은 “肝之爲病은 不但不利于脾오 舉凡驚癇 癲狂 眩暈 腦充血諸證 西人所謂腦氣筋病者는 皆與肝經有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치료할 때, 金克木의 이치를 취하여 五金之品을 사용하여 누를 것이니 쇠의 녹, 鉛灰, 金銀箔, 赭石 등의 종류이고 清肝, 潤肝하는 약으로 보좌를 삼아야 하니 羚羊角, 靑黛, 芍藥, 龍膽草, 牛膝 등의 약은 肝經의 風을 안정시키고 火를 그치게 하여 腦氣筋도 常度를 따르게 되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속히 낫지 않는 자는 脾胃를 調補하는 약으로 도와 주어야 되니 이런 뒤에라야 金속 및 寒涼한 약을 오래 복용해도 痲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1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66~67.

張錫純은 內中風(腦充血), 腦充血을 겸한 癇病, 神經錯亂 등을 鎮肝의 法을 써서 치료하였는데 이 중에서 西醫들이 말하는 腦充血로 인해 中風이 된 경우에 鎮肝熄風湯(懷牛膝一兩, 生赭石一兩, 生龍骨五錢, 生牡蠣五錢, 生龜板五錢, 生杭芍五錢, 玄麥五錢, 天冬五錢, 川楝子二錢, 生麥芽二錢, 茵陳二錢, 甘草錢半)을 써서 치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을 內中이라고 부르는 것은 風이 안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內經』에서는 “諸風掉眩, 皆屬於肝”이라고 하였다. 肝은 木臟으로 巽卦에 해당하고 巽은 원래 風을 主한다. 또 그 가운데 相火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 이러한 것들이 [風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시니 木火가 致盛하면 역시 저질로 風이 발생한다. 이는 肝木이 造化를 잃어 風이 肝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肺氣가 하강하지 못하여 腎氣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므로 衝氣와 胃氣가 다시 上逆하게 된다. 이에 臟腑의 氣化가 모두 지나치게 상승해서 血이 腦로 上注할 경우 역시 지나침으로 인하여 혈관이 充塞되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하면 신경이 맑은 바를 잃어버려 昏厥하고 人事不省하게 된다. 양방에서는 腦充血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실제해부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처방 가운데 牛膝을 重用하여 血을 끌어내려주는데 이것은 標를 치료하는 主藥이다. 그리고 다시 병의 근원을 깊이 따져 龍骨·牡蠣·龜板·芍藥·玄麥과 天門冬으로는 清肺氣하여 肺中の 清肅한 氣運을 내려주어서 저질로 肝木이 鎮靜될 수 있게 한다. 兩尺部の 脈이 虛한 것은 腎臟의 眞陰이 虛損하여 眞陽과 서로 연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腎의 眞陽이 虛脫되어 위로 달아나면 氣血을 함께 끼고 뇌로 上衝하므로 熟地黃과 萸肉을 가하여 補腎斂神시킨다.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처방은 원래 이 약물들 정도에서 그친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처방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간혹 처음 약을 복용시켰을 때 도리어 氣血이 위로 올라가 병이 심해진

경우가 있어 生麥芽·茵陳·川楝子를 가했더니 이러한 폐단이 없게 되었다. 대개 肝은 將軍之官으로 그 성질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만약 단지 약으로 억지로 다스리면 도리어 그 반발하는 힘을 폭발시키게 된다. 茵陳은 靑蒿의 싹으로 초봄에 少陽의 처음 발생하는 기운을 얻어 肝木과 同氣相求를 이루므로 肝熱을 사하고 겸하여 肝鬱을 풀어서 실제로 肝木을 순하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있다. 麥芽는 穀食의 싹으로 生用하면 역시 肝木을 순하게 만들어 抑鬱되지 않게 한다. 川楝子は 肝氣를 잘 끌어내려 그 반동하는 힘을 끊을 수 있다. 처방에 이 세 가지 약물을 가하여 사용한 뒤부터는 자연히 다른 우려가 없게 되었다.”¹⁶⁾

위에서 鎮肝을 하면서도 肝氣를 上昇시키는 生麥芽, 茵陳 등의 약물을 并用하고 있는데 이것이 用藥의 妙法으로 楊宇는 이러한 昇과 降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⁷⁾.

(1) 昇降相因

예들 들면 肝氣郁滯에 胃氣不降이 兼한 病證을 치료할 때 代赭石, 半夏, 竹茹로 降胃安衝하고, 山藥, 二冬으로 潤胃補胃하는 外에 또한 生麥芽, 茵陳을 사용하였다. 그는 “麥芽生用能昇肝氣, 茵陳爲靑蒿之嫩者, 亦具升發之力”이라고 하였다. 胃氣上逆證의 치료에 어찌서 輔佐로 昇肝을 해주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肝氣不昇則先天之氣化不能由肝上達, 胃氣不降則後天之飲食不能由胃下輸.”이라고 말하였다. 이 證은 應當히 降할 者は 降하지 않고, 또한 應當히 昇할 者は 昇하지 않기 때문에 降胃해주는 藥中에 昇肝해주는 藥을 조금 輔佐로 사용함으로써 그나마 單純하게 鎮降하는 藥의 사용으로 因하여 適當히 昇할 者가 昇하기 어려워지게 하는 弊端을 避할 수 있다. 病案을 예를 들면 姓이 郭氏인 한 患者가 자주 가

16)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312~313.

17) 中醫雜誌, 1985年, 第五期, p. 52.

슴에 滿悶感을 느끼고 飲食이 胃에 停滯되어 내려가지 않으며, 때로는 嘔吐하고 반드시 通利作用이 있는 藥을 服用해야만 大便을 볼 수 있는 症狀있었는데, 이미 一年이 넘었지만 많은 藥을 썼어도 효과가 없었다. 張氏는 代赭石의 사용량을 크게 하여 胃氣를 下行하게하고, 厚朴으로 通陽하고, 鷄內金으로 化積하며, 山藥으로 健脾하고, 當歸로 養血潤便하였다. 處方中에 柴胡를 加하여 昇肝해준 것이 아주 妙한 方法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用柴胡者, 因人身之氣化左宜昇, 右宜降, 但重用鎮降之藥, 恐有妨于氣化之自然, 故少加柴胡以宜宣通之, 所以還其氣化之常也.” 라고 하였다. 張氏는 昇肝作用을 주된 方法으로 삼고 昇降이 서로 對立되면서 서로 統一을 이루게 하였으므로 오래된 痼疾을 완치하였다.

(2) 降中寓昇

肝은 將軍의 官으로서 相火가 寄居하여 있는 곳이다. 肝에 病變이 있을 때는 자주 肝陽, 肝火上亢 혹은 肝風內動上擾 등 證이 나타난다. 臨床治療에서는 자주 ‘高者抑之’, ‘有餘折之’ 등 治療原則에 따라 鎮肝, 潛肝, 瀉肝 등 治療방법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張錫純은 “驟用藥斂之, 鎮之, 瀉之, 而不能順其性, 其內郁之熱轉挾相火起反動力也.” 이라고 하였다. “肝主左而宜昇”의 基本觀點에 違據한다면 張氏는 肝陽, 肝陽上亢 혹은 肝風內動上擾 등 證만 보고 바로 鎮降하는 藥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恒常 大劑로(약량이 많은 방제) 鎮肝降肝한 基礎下에 昇肝의 藥을 輔佐로 조금 사용하여 降中寓昇(降하는 과정에 昇의 작용이 곁붙어 있다) 하게 하여 “順肝木之性使不至反動” 하게 하였다. 어떤 病案의 例를 든다면 食滯, 嘔吐, 大便을 열흘 만에 한번 보고, 脈이 弦한 증상이 있는 한 患者가 있었다. 張氏는 “肝胃衝三經之氣化皆有昇無降” 이라고 인정하고, 瀉肝, 降胃, 鎮衝하는 藥들을 사용하여 이 환자를 치료하였고, 역시 生麥芽, 茵陳을 사용하여 昇肝을 해주었는데 이 두 가지 藥은 肝氣를 잘 舒해주지만 또한 過度로 昇提하지 않으므로 肝木의 特性을 살려주

면서 柔和하게 하는 作用이 있었다. 또 예를 들면 그는 鎮肝熄風湯을 肝陽化風, 上盛下虛, 臟腑의 氣化가 모두 上昇太過한 證을 主治하는 方劑로 사용하였다. 張氏가 이 방제를 처음 作成할 때는 潛降, 育陰, 熄風作用이 있는 藥들만을 使用하였는데, 後에 이 처방을 사용하여 治療效果를 많이 보았지만, 이 藥을 처음복용한 후 도리어 氣血이 上攻하여 病이 더 惡화된 환자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原處方에 生麥芽, 茵陳, 川楝子를 加하여 사용하자 그런 弊端을 免할 수 있었다.

張錫純은 鎮肝, 斂肝에 많이 응용한 龍骨에 대해 “且元氣之脫은 多由肝經하니(肝系下는 與氣海相連 故로 元氣之上脫者는 必由肝經이라) 因肝主疏泄也라 夫肝之取象爲靑龍이니 亦與龍骨로 爲同氣라 是以 龍骨之性은 既能入氣海以固元氣하고 更能入肝經以防其疏泄元氣하니 此乃天生妙藥으로 是以 本經列之上品也라 且爲其能入肝斂斂肝木하니 愚于忽然中風肢體不遂之證에 其脉甚弦硬者는 知系肝火肝風內動하여 恒用龍骨同牡蠣加于所服藥中以斂戢之하니 至脉象柔和하고 其病自愈라.” 하였고, 牡蠣에 대해 “主驚悲怒氣者는 因驚則由于膽하고 怒則由于肝하니 牡蠣鹹寒屬水하여 以水滋木 則肝膽自得其養이라 且其性善收斂하여 有保合之力 則膽得其助而驚恐自除하고 其質類金石하여 有鎮安之力 則肝得其平而悲怒自息矣라 至于筋原屬肝하니 肝不病而筋之或拘或緩者自愈 故로 本經又謂其除拘緩也라하니라.” 하였고 石決明에 대해서는 “爲其能涼肝하고 兼能鎮肝 故로 善治腦中充血作疼作眩暈하니 因此證多系肝氣肝火挾血上沖也라 是以愚治腦充血證에 恒重用之하여 至兩許라 其性又善利小便 通五淋하니 蓋肝主疏泄하고 爲腎行氣하니 用決明以涼之鎮之하여 俾肝氣肝火로 不妄動自能下行하고 腎氣不失疏泄之常하면 則小便之難者自利하고 五淋之澁者自通矣라.” 하였다.

6) 斂肝法

脫證은 從來로 脾臟과 腎臟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脾腎陽衰하면 陽脫하고 腎陰이 竭하면

陰脫하며 脾臟이 극도로 虛하면 氣脫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張錫純은 유독 肝臟을 중요시 하여 이르기를 “凡人元氣之脫은 皆脫在肝故로 人虛極者는 其肝風必先動하니 肝風動은 卽元氣欲脫之兆也.”¹⁸⁾라고 하였다. 肝臟이 脫證을 주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人之臟腑는 惟肝主疏泄하니 人之元氣將脫者는 恒因肝臟疏泄太過”라고 하였다. 그 증상은 大汗不止가 많고 혹은 寒熱往來, 戴眼, 無汗하면서 心中이 動搖되거나 喘促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斂肝시키는 藥을 써서 肝氣가 疏泄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능히 元氣가 장차 脫하려는 상태를 막을 수 있다. 斂肝은 즉 補肝이다. 張錫純은 斂肝시키는 藥을 쓰는데 독창적인 見解가 있었는데 大劑山茱萸를 써서 “凡人身之陰陽氣血將散者 皆能斂之”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來復湯(萸肉二兩, 生龍骨一兩, 生牡蠣一兩, 生杭芍六錢, 野台參四錢, 甘草二錢)을 立方하여 傷寒과 溫病의 外感으로 인한 諸證과 大病이 나온 후 회복이 되지 않고 寒熱往來, 虛汗淋漓 或 但熱不寒, 汗出而熱解라가 須臾에 又熱又寒하고 目睛上竄하야 勢急欲脫하며 或喘逆, 或怔忡, 或氣虛不足以息을 치료하였는데 모든 증상에서 하나라도 보이면 급히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의 치험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여 세의 어떤 사람이 음력 10월에 傷寒證에 걸렸으나 10여 일 동안 치료하여 表裏가 모두 풀렸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발열이 있고 문득 밥 먹을 시간 때에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 열이 갑자기 풀렸다가 잠시 후 다시 열이 나면서 땀이 나왔다. 이와 같이 이틀 동안 병세가 위급해지자 황급히 나를 불러 치료하게 하였다. 가서 보니 전신에서 땀이 세수한 듯 나오고 눈을 위로 치켜 떠서 검은자위가 보이지 않았으며 左脈은 微細하여 모호했고 누르면 사라졌다.

이것은 肝膽이 虛極하여 元氣가 빠져 나갈려는 것이다. 대개 肝膽이 虛한 경우는 寒熱往來하

는 병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이 문득 발열이 있고 문득 땀이 나오는 것은 寒熱往來하는 것이다. 급히 淨萸肉 2兩을 달여 복용시켰더니 발열과 땀이 나는 것이 모두 절반 정도 나왔고 이어서 이 처방을 만들어 2劑를 복용시켰더니 병이 사라진 듯 하였다.

40여 세의 어떤 사람이 外感으로 痰喘하는 것을 내가 치료한 것이 있었는데 脈은 浮하면서 힘이 미미하였고 누르면 곧 없어졌다. 내가 脈象에 뿌리가 없으니 강력히 補하는 약을 복용시켜 뜻밖의 변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자 환자가 가족들은 환자가 이전부터 補藥이 받지 않아서 복용하면 미쳐 버리니 강력히 補하는 약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補藥을 두려워하니 이와 같이 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며 환자가 족들에게 나의 말을 믿으라고 하였다.

반나절이 지나자 급히 喘逆이 발하여 숨을 거의 쉬지 못하였고 땀이 온몸에서 나왔으며 사지가 차가워지고 몸이 뒤로 젖혀져 위급함이 경계에 달해 있었다. 급히 淨萸肉 4兩을 사용하여 센 불로 달여 한 번 팔팔 끓인 다음 마시게 했더니 발한과 喘證이 모두 약간씩 그쳤다. 계속해서 물을 첨가하여 다시 여러 번 팔팔 끓여 마시게 했더니 병이 나은 듯하였다.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재탕하여 마시게 했더니 발한과 喘證이 그치면서 사지의 厥冷도 회복되었다.

한 소년이 평소에 흡연과 색욕에 상한데다 다시 風寒邪氣를 받게 되자 의사가 表部로 발산시키는 약 몇 劑를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이틀만에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정충이 발생하였고 스스로 숨이 끊어 질 것 같다고 호소하여 급히 조치를 구하기에 診脈해보니 (脈이) 浮弱하면서 뿌리가 없는데 좌우가 모두 그러하였다.

나는 이 증이 비록 위급하지만 치료하기는 쉬워서 萸肉 몇 兩만 쓰면 치료하는데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장마비가 내렸고 약방은 5리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빠른 말을 보내 비를 맞으면서 급히 淨萸肉 4兩과 人蔘 5錢을 구해 오게 하였다.

18)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26~27.

먼저 黃肉 2兩을 여러 차례 팔팔 끓여 급히 복용시켰더니 마음이 안정되고 땀이 그쳤으며 숨이 이어져서 다시 人蔘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이를 나머지 山萸肉을 끓여 만든 진한 湯液으로 送服시켰더니 병이 사라진 듯하였다.

48세의 어떤 사람이 땀을 줄줄 심하게 흘렸는데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고 이부자리가 모두 축축해졌으며 병세가 위급하였다. 나에게 처방을 물어 오기에 淨黃肉 2兩을 달여 마시게 하였더니 땀이 그쳤다. 다음날 새벽에 내가 가서 진찰해보니 脈이 沈遲細弱했는데 우측의 沈細가 더 심했고 비록 크게 땀이 나지는 않았지만 전신이 축축하였다. 胸中大氣가 下陷한게 아닐까 의심되어 물어보니 과연 胸中の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마치 커다란 돌이 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이 앞의 땀은 大氣가 下陷한 후에 衛氣를 統攝하지 못하여 바깥으로 빠져 나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生黃芪 1兩, 黃肉·知母 各3錢을 사용하였더니 1劑만에 가슴이 탁 트였고 땀 역시 완전히 그쳤으며 다시 여러 劑를 복용하게 하여 그 예후를 좋게 하였다.

한 임산부가 霍亂證에 걸려 구토와 설사를 약 하루 동안 한 후에 병이 점점 물러갔는데 태아가 갑자기 유산되었다. 그러자 神氣가 갑자기 흩어지고 心中이 흔들려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나에게 치료를 구하였다. 가서 보니 (이미) 병세가 크게 바뀌어 수의를 입혀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환자 가족들은 진찰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만회시킬 수 있다고 하고서 진찰해 보니 脈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였고 숨이 깔딱깔딱했으며 불려도 반응이 없었다.

쓸 만한 약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마침 이 집의 아버지가 약 2劑를 사 두고서 복용하지 않은 나의 처방에 모두 黃肉 6錢이 있기에 급히 골라내어 달여 마시게 했더니 숨이 점점 커지고 부르며 반응하게 되었다.

다시 黃肉과 生山藥 各2兩을 큰 사발 1잔 분량으로 달여 천천히 따뜻하게 마시게 했더니 정신

이 갑자기 돌아왔다. 매일 生山藥 가루 1兩 정도를 죽으로 끓여 복용하게 하여 그 예후를 좋게 하였다.”¹⁹⁾

여기에서 주된 약이 山萸肉인데 本草解에서는 “山萸肉은 味酸性溫하야 大能收斂元氣하고 振作精神하며 固澁滑脫이라 因得木氣最厚하야 收澁之中에 兼具條暢之性 故로 又通利九竅하고 流通血脉하니 治肝虛自汗 肝虛脇疼腰疼 肝虛內風萌動이라 且斂正氣而不斂邪氣하야 與他酸斂之藥不同이라 是以 本經謂其逐寒濕痺也라.”고 하였다. 또 曲直湯條에서도 “山萸肉은 木氣를 매우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酸味로 발산시키는 가운데 開通시키는 힘을 크게 갖추고 있으니 木性이 소통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이다. 『神農本草經』에서는 寒濕痺를 主한다고 하였고 여러 醫家의 本草書에서는 九竅를 通利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성질이 肝을 補할뿐 아니라 겸하여 氣血을 通利시킴을 알 수 있다. 단지 收澁시키는 약물로만 보면 山萸肉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특히 核과 肉의 성질은 정반대이므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니 아무리 많아도 核을 제거해야 한다.”²⁰⁾라고 하였다.

이 斂肝法은 肝主疏泄과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楊宇는 疏와 斂을 함께 논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¹⁾.

肝主疏泄한다. 肝의 疏泄作用은 주로 人體氣機의 調暢과 관계되고, 精神情志의 活動, 水穀精微物質의 代謝와 血液運行 등 여러 種類의 生理機能과 關聯이 있다. 肝의 病理的인 改變은 疏泄作用이 不及하거나 太過한 상태로 나타난다. 疏泄作用이 不及할 때는 옹당히 疏하는 방법을 爲主로 치료해야하고, 疏泄作用이 太過할 때에는 옹당히 斂하는 방법을 爲主로 치료해야한다. 張錫純은 肝主疏泄의 작용에 대하여 남다른 理解를 갖고 있는데, 즉 “內經謂肝主疏泄, 腎主閉藏. 夫肝

19)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25~26.

20)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91~192.

21) 中醫雜誌, 1985年, 第五期, p. 52.

之疏泄, 原以濟腎之閉藏, 故二便之通行, 相火之萌動, 皆以肝氣有關.”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張氏의 疏肝과 斂肝의 방법은 아주 獨特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氣血이 肢體에 郁滯되어 나타난 疼痛證의 치료에 대하여 임상에서는 늘 風寒濕氣가 주요한 發病原因으로 인정하고 祛風散寒, 健脾除濕, 行氣活血 등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張氏는 아직 “肝虛不能疏泄, 相火即不能逍遙流行於周身, 以致郁於經絡之間, 與氣血凝滯而作熱作疼”하는 者가 있다고 하였다. “曲直湯”을 訂하여 山萸肉으로 肝을 補하고, 知母로 熱을 瀉하며 “疏達肝郁之藥, 若柴胡, 川芎, 香附, 生麥芽, 乳香, 沒藥皆可選用”이라고 하면서 乳香, 沒藥, 當歸, 丹蔘 등 藥을 配伍하여 疏肝함으로써 氣血을 流通하게 하였다. 이런 치료법칙에 따라 靈活하게 운용한다면 痼疾이 흑시라도 완치할 수 있을 것이다. 病案을 예를 들면 한 患者가 四肢作疼으로 醫師가 지어준 藥을 三十餘劑 服用하였지만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疼痛이 멈추지 않았으며, 팔 部位는 畏熱하고 다리 部位는 畏涼하였다. 張氏는 이모저모로 再次 생각하여 “因肝木稍虛, 惑肝氣兼有郁滯, 其肝中所寄之相火不能下達, 所以兩腿畏涼, 其火郁於上焦, 因肝虛不能敷布, 所以兩臂畏熱”이라고 깨우쳤다. 그래서 曲直湯을 模倣하여 補肝에 疏肝을 兼하여 치료하자 그 환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완치하였다.

張氏는 肝의 疏泄作用이 腎의 閉藏作用을 돕는다는 觀點으로부터 “蓋人之元氣, 根基於腎, 萌芽於肝.”이라고 進一步 提出하였다. 따라서 元氣虛로 上脫證이 나타나는 것은 病機가 “恒因肝之疏泄過甚而上脫”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斂肝하는 藥을 重用하여 肝의 疏泄作用을 抑制하면 元氣의 脫路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山萸肉과 같은 補肝斂肝의 效能이 있는 藥들은 補氣作用이 人蔘보다 훨씬 못하지만 氣虛上脫證을 구제하는 작용이 人蔘보다 낫다는 理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張氏는 脫證을 救治하는 方面에서 독특한 風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7) 補肝法

補肝을 시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千金翼方』에서는 補肝湯을 제시하고 있는데 烏頭 桂心 人蔘 등의 溫陽益氣시키는 약으로 補肝하게 하였다. 宋元 이후에는 그 추세가 점차 모호해진다. 明의 李中梓는 “肝無補法”이란 學說을 提示하여 孫思邈의 補肝論과는 다른 의견을 提示하였다. 明의 張景岳은 “補肝血莫如滋腎水”라는 論點을 提示하였는데, 이 또한 전의 內容과는 다른 것이다. 張錫純은 “肝虛無補法者는 此非見道之言也”라고 하였고, 肝陽이 不振하여 肝氣가 鬱滯되어 下陷된 것을 모두 肝虛證으로 보고 黃芪를 重用하여 補肝하였다. 그 肝氣를 補한다는 뜻은 肝陽을 흥분시켜서 肝氣가 脫하려는 證象을 구하는 方法인데, 그의 이러한 독창적 견해를 칭찬을 받을 만하다. 현재에 臨床의으로 飲食不消 血崩 陰挺 및 腿痛 肢痛 등을 治療할 때에 補肝法으로 論治하는데, 그 治療效果가 매우 기이하다.

張錫純은 脇下痛을 호소하는 환자를 平肝, 舒肝, 柔肝시키는 법으로 치료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병세만 심해져 동통이 심할 때는 精神이 昏憤해지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다. 그 환자는 左脈은 微細하고 按之則無하며 右脈은 似近和平이나 其搏動之力은 略失于弱하였다. 그는 生筋芪五錢, 生杭芍四錢, 玄蔘四錢, 滴乳香三錢, 明沒藥三錢, 生麥芽三錢, 當歸三錢, 川芎二錢, 甘草錢半의 處方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肝은 脇下에 있고 그 성질은 木에 속하며 원래 條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肝氣가 허약하며 條達하지 못하므로 脇下에 痛증이 발생한다. 통증이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한데 『難經』에서 “肝이 臟이 되면 치료는 왼쪽에서 하고, 그 藏은 右脇과 右臂앞쪽에 있고 胃와 함께 胃의 第9椎에 붙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나 ‘藏’이라는 것은 肝臟이 위치하는 곳이고, ‘治’라는 것은 肝氣가 행하는 곳이다. 이것으

로 肝이 비록 오른쪽에 있지만 그 氣化는 실제로 왼쪽에서 먼저 행함을 알 수 있다. 통증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肝氣가 행하는 곳에서 鬱結된 것이다. 통증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肝氣가 머무는 곳에서 鬱結된 것이다.

통증이 극렬할 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肝經의 病原과 신경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치료하려면 肝氣를 보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升肝면서 化鬱시키는 약을 보조해야 한다.

方書에 '肝虛에 補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周易』에서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氣運은 서로 구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 이치를 미루어 짐작해보니 黃芪가 肝을 補하는 主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이치인가 하면 黃芪의 성질은 溫하면서 상승하는데 臟腑 중에서 溫升의 성질을 가진 것은 肝木이다.

그래서 각 臟腑의 氣虛를 黃芪가 補할 수 있는 것이다. 肝經의 氣虛를 補하는데 실로 同氣相求의 妙함이 있기 때문에 方中에서 主藥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질이 상당히 溫하여 重用하면 비록 肝氣는 잘 補하더라도 肝火를 도울까 염려되었기에 滋陰涼潤시키는 芍藥과 玄蔘으로 다스렸다. 乳香과 沒藥은 肝氣의 鬱滯를 溶化시켜 주는 것들이다. 麥芽와 芍藥은 肝氣의 鬱滯를 升達시켜 준다(麥芽를 生用하면 升達의 힘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融化나 升達을 막론하고 모두 그 經絡을 통하게 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當歸를 사용한 것은 肝은 血을 저장하는 臟이므로 이미 그 氣를 補하였으니 다시 그 血을 補하고자 해서이다. 또 當歸는 味가 甘하고 質이 膩하여 血을 잘 생성하며 性이 溫하고 味는 또한 辛을 겸하여 氣分을 柔和시킬 수 있다. 甘草를 사용한 것은 肝急을 緩和시킬 수 있어서이고, 甘草와 芍藥을 같이 사용하면 원래 腹疼을 잘 치료하는데 옆구리의 통증도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여기에서 張錫純은 黃芪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醒脾升陷湯條에서 黃芪의 補肝하는 功能에 대해서 "或者가 問기를 黃芪는 肺脾를 補하는 약인데 지금은 肝氣를 補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된 것인가? 대답하기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고 孔子가 말하였다. 肝은 木에 속하고 木에 응하며 그 氣는 따뜻하고 성질은 條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黃芪는 성질이 따뜻하고 상승하므로 肝을 補하기 때문에 원래 '同氣相求'하는 妙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임상에서 보건대 肝氣가 허약하여 條達하지 못하고 일체의 肝을 補하는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黃芪를 主藥으로 삼아서 重用하고 理氣藥으로 약간 보조하여 복용시키면 두 번째 잔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²³⁾라고 하였다.

그는 醫學衷中參西錄 第四期 第一卷 黃芪解에서도 20여세 된 王氏女가 心中寒涼, 飲食減少하여 의사를 불러 약을 먹었지만 1년 이상 낫지 않았고 몸만 더욱 수척하게 된 경우에 左脈이 微弱不起하자 肝虛로 판단을 하여 生黃芪八錢, 柴胡, 川芎 各一錢, 乾薑三錢으로 치료를 한 醫案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는 肝虛에 無補法이라고 하는 자는 "原非見道之言也"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楊宇는 肝의 補와 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論하고 있다²⁴⁾.

肝臟의 生理特徵을 概括하여 말한다면 體陰而用陽이다. 血은 體가 되고 氣는 用이 된다. 肝은 將軍의 官으로서 그 特性은 剛強하므로 肝臟의 氣機가 不和하면 자주 橫逆하여 其他 臟에 影響을 준다. 그중 脾胃가 제일 먼저 影響을 받게 된다. 肝氣過盛으로 脾土가 剋傷하면 항상 肝氣橫逆의 一面에 着眼하게 되므로 따라서 "平肝之議出焉. 至平肝之猶不足制其橫恣, 而伐肝之議又出焉"하게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平肝해주는 것이

社. 1999. pp. 65~66.

2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80.

24) 中醫雜誌, 1985年, 第五期, p. 53.

2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바로 補脾해주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또는 肝을 治療하는 方法은 應당히 散하는 것을 補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提出하였다. 張氏는 “肝木于時應春, 爲氣化發生之始, 若植物有萌芽, 而竟若斯平之伐之, 其萌芽有不挫折毀傷者乎?”이라고 하였으며, 散해주어 肝의 升發條達의 特性이 調暢할 수 있으나 또한 傷氣耗血하고 暗傷腎水로 肝木의 根源을 損傷할 수도 있는 弊端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一방적으로 肝臟의 攻伐을 主張하는 것을 反對하고 平肝, 散肝, 伐肝의 治法을 잠시 使用할 수 있으나 오래 동안 使用해서는 안된다고 提出하였으며, 治本의 原則은 應당히 『內經』의 “厥陰不治, 求之陽明”과 『金匱』의 “見肝之病, 知肝傳脾, 當先實脾”에 따라야하며 肝臟攻伐에만 偏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應당히 “培養中宮, 俾中宮氣化敦厚, 以聽肝木自理”해야 한다고 하였다.

肝木이 過盛하면 脾土를 剋傷할 수 있고 運化失司를 초래할 수 있으며, 肝木이 過弱해도 역시 脾土를 疏通할 수 없고 食呆, 噯噯, 脹滿, 嘔惡, 泄瀉 등 證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특히 補肝과 伐肝을 헛갈려서 攻伐을 誤用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張氏는 補肝氣의 方法을 提出하였다. “肝氣”는 一般적으로 病理的인 名詞로만 使用하였지만 張氏는 그것을 生理的인 概念으로 使用하였으며, 때로는 肝陽과 같은 뜻으로 互稱하였다. 이런 觀點에 대하여 秦伯未先生은 아주 贊成을 하였으며 “萬若 肝氣와 肝陽을 病理的인 명사로 使用한다면 모두 病理的인 方面으로 研究를 하게 되고 生理的인 方面의 主要作用을 홀시하게 되며, 또한 肝虛症에 대해서는 血虛만 重視하고 氣虛를 考慮하지 않게 되므로 이것은 分明히 完璧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張氏는 肝氣를 補하는데 黃芪를 優先적으로 使用하였으며 “愚自臨證以來, 凡遇肝氣虛弱不能條達, 用一切補肝之藥皆不效, 重用黃芪爲主, 而少佐以理氣之品, 服之復杯即見效驗.”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飲食을 消化할 수 없어 健脾暖胃의 藥을 百劑 복용했으나 效과가 없는 證에 대하여 “診其左關太弱, 知係肝陽不振, 投以黃芪一兩, 桂枝三錢, 數劑而愈.

又治黃疸, 診其左關太弱, 重用黃芪煎湯, 送服金匱黃疸門硝石礬石散而愈.”이라고 하였다. 만약 補肝의 方法이 오직 養血滋陰에만 局限된다면 肝氣虛와 肝陽虛 등 證의 治療에 效果가 없을 뿐만 아니라 肝臟陰血虧損證에도 “潤藥屢用, 實與脾胃有碍”한 弊端이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張氏는 補肝治法中에서 확실히 獨창적인 治法을 創造한 것이다.

8) 緩肝法

『素問·臟氣法時論』에서 “肝苦急하니 急食甘以緩之”²⁵⁾라고 하였다. 이는 肝은 在志爲怒오 怒則氣急하는데 甘味는 能히 急한 것을 緩和시킬 수 있으므로 급히 甘味를 먹어 緩和시키라는 내용이다.²⁶⁾ 張錫純은 肝苦急에 대해 “乃氣血이 忽然相并于肝中하야 致肝虛有急迫難緩之勢하야 因之失其常司라 當其急迫之時하야 肝體亦或木硬이라가 而過其時면 又能復常이라”고 하였고 治法은 甘草一味를 連달아 달여 마시면 며칠 만에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은 앞에서 말한 肝體가 木硬할 때 쓰는 柔肝法과는 다른 경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方法으로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자는 或 涼潤하는 藥, 예를 들어 羚羊角, 白芍藥을 쓸 수 있고 혹은 다시 鎮重시키는 朱砂, 鐵銹 등을 더해 써도 모두 좋다고 하였다.

III. 結 論

清末 民國時代의 醫家인 張錫純(1860~1933)의 醫學衷中西錄과 第五期 第三卷에 있는 “論肝病治法”의 내용을 연구한 결과 그의 肝病에 대한 治法을 平肝法, 散肝法, 化肝法, 柔肝法, 鎮肝法, 斂肝法, 補肝法, 緩肝法의 八法으로 요약할 수가 있었다.

25) 洪元植, 上揭書, p. 49.

26) 山東中醫學院 河北中醫學院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13.

1. 平肝法은 사람의 元氣가 神에 뿌리를 두고 肝에서 삭이 더 연약하여 손상되기 쉬우므로 肝氣를 開破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 內經의 “厥陰不治求之陽明”과 金匱의 “當先實脾”가 肝氣를 다스리는 핵심이라 하여 昇降湯, 培脾舒肝湯 등의 처방을 立方하였으며 平肝藥으로 桂枝를 重視하였다.
2. 散肝法은 肝은 木의 臟器로 直向性을 가지고 위로 뻗어가므로 그 성질에 부응하는 辛味로 散하는 것이 補法이 된다고 하고 散肝藥으로 茵陳과 麥芽를 善用하였다.
3. 化肝法은 肝體가 커지며 혹은 肝속에 熱이 있거나 肝氣가 鬱滯되거나 壅脹될 때 疏肝達鬱시키는 방법으로 柴胡, 乳香, 沒藥을 사용하였으며 活血藥을 佐藥으로 사용하였는데 三七根을 특히 중시하였다.
4. 柔肝法은 “肝惡燥喜潤하니 燥則肝體板硬而肝火肝氣即妄動하고 潤則肝體柔和而肝火肝氣長寧靜”이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當歸, 芍藥, 柏子仁, 玄蔘, 枸杞子, 阿膠, 鱉甲을 選用할 수 있는데 오래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5. 鎮肝法은 驚癇, 癲狂, 眩暈, 腦充血諸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鎮肝熄風湯이 있다.
6. 斂肝法은 “凡人元氣之脫은 皆脫在肝”이라는 그의 독특한 이론에 근거한 처방으로 來復湯등이 대표적인 처방인데 여기서 그는 大劑로 山茱萸를 사용한다.
7. 補肝法은 肝氣가 허약하여 條達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黃芪가 肝을 補하는 主藥이 된다고 하였다.
8. 緩肝法은 “肝苦急하니 急食甘以緩之”에 의거한 처방으로 甘草一味가 대표적인 藥이라고 하였다.

參考文獻

1.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 山東中醫學院.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5. 中醫雜誌. 1985. 第五期.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